

세계화 외치는 5·18...국립묘지 외국인 전담해설사 상주해야



매년 7000~8000명 방문...올해도 벌써 200명 다녀가 주말에만 배치·평일 비정기 예약제...인력 양성 시급

광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상당수가 국립5·18 민주묘지를 찾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5·18의 세계화와 마케팅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를 찾는 외국인들은 민주 인권 도시라는 광주의 상징성과 방탄소년단 '제이홉'·'슈가' 등을 통해 알려진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알기 위해 국립

묘지를 찾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는 미안마 군부 쿠데타로 인한 참사가 발생하면서 5·18의 도시인 광주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5·18민주묘지에는 그동안 매년 7000~8000명의 외국인들이 방문하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에도 1000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찾았

다. 코로나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는 올해도 이미 200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국립묘지를 다녀갔다.

광주와 '5·18'에 호감을 갖고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5·18민주화운동을 자세히 알리기 위해서는 현재 예약에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외국인 대상 전담 해설사를 상시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외국인 전담 해설사를 충분히 양성·배치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5월 한달 동안이라도 상시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0일 국립 5·18민주묘지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해 5·18민주

묘지를 참배한 외국인인 1054명이었다. 예년보다 크게 줄었지만 올해 1월부터 지난해까지 4개월간 외국인 200명이 참배 행렬에 동참했다. 코로나 이전에는 외국인 참배객이 해마다 7000명 안팎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7509명, 2018년 6634명, 2019년 8517명 등이었다.

하지만 상당수 외국인 참배객은 제대로 된 설명이나 도움을 받지 못해 5·18항쟁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담 해설사는 외국인 참배객을 인솔하며 1·2요역 등 시설을 두루 안내한다. 항쟁 의미와 열사의 삶과 정신을 소개하는 역할도 맡는다. 그러나 5

·18민주묘지 관리사무소가 광주관광재단에 요청할 경우에만 어학 능력을 갖춘 해설사가 투입되고 있다. 여건상 주로 주말에만 배치돼 평일엔 공백이 불가피하다. 평일엔 미리 예약해야만 전담 해설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5·18 관련 한 전문가는 "민주화운동이나 항쟁 등과 관련한 설명은 일반 어학 능력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 인력을 양성하거나 선발해 외국 관광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마케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죄·배상 안하는 미쓰비시 같은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

나야 마사히로 전 日 국립대 교수, 미쓰비시 사장에 편지

일본의 한 국립대학 전직 교수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미루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에 “같은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며 조속히 사죄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나아 마사히로(67) 전 국립 아이치 교육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23일 이즈미자와 세이이 미쓰비시중공업 사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나야 마사히로 교수는 편지에서 “한국의 고교생들 상당수는 미쓰비시중공업이 파렴치한 전범 기업이라는 것, 그리고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양심적인 일본인이 있다는 것을 역사 수업 시간에 배우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썼다.

이어 “일본에 미쓰비시중공업과 같은 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이 나는 일본인으로서 부끄럽

습니다. 잘못했으니 사죄하십시오. 인간으로서 부끄럽습니다”며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합니다. 제 진심어린 소원입니다”고 이즈미자와 사장에게 전했다.

나야 교수는 일본 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모임인 ‘나고야소송지원회’에서 활동중인 일본인이다.

나고야소송지원회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계기로 2007년부터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금요행동을 해왔다.

나고야소송지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요행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사죄와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엽서 보내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엽서 480장, 편지 19편이 전달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화이자 백신 접종 행렬 10일 오전 광주시 북구 예방접종센터 앞에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으려는 고령층 대상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전남 농어촌 학교 학생수 늘어난 까닭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조선대 14년 연속 선정

제한적 공동학구제 도입 효과 원·신도심 학교간 불균형 해소 2015년부터 5800여명 증가

‘제한적 공동학구제’ 도입 효과로 매년 전남지역 농어촌 소규모 학교로 유입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이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한적 공동학구제’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로 유입된 학생 수가 2015년 171명 증가한 데 이어 2019년 1345명, 2020년 1986명, 올해 들어 현재까지 2351명으로 증가

했다. 제한적 공동학구제란 시·읍·지역 거주 초·중·고등학교 이면 지역 학교로만 전·입학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올해부터는 신도심과 원도심 학교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시·읍·지역 내 25학급 이상 초등학교에서 12학급 미만 초등학교로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제도 운용을 확대했다.

이처럼 소규모학교 유입 학생이 꾸준히 늘어 교육과정 정상화와 시·읍·지역 과대·과밀학급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도 교육청은 분석했다.

오준경 전남도교육청 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제한적 공동학구제 운용을 적극적으로 확대·지원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넓혀주는 물론 작은 학교 활성화, 교육수요자 중심 교육 실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대학교가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14년 연속 선정됐다.

10일 조선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중간평가에서 2020년 지원사업 선정대학 총 75개교의 운영 실적 결과와 2021년 사업계획, 2022~2023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으며 계속지원대학 73개교를 확정하였다.

조선대는 2008년부터 운영된 이 사업의 전신인 ‘입학사정관제 운영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올해로 14년 연속 선정되었다. 조선대학교는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11억 9200만원의 지원받았으며, 2021년 사업비는 사업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조선대학교는 2022학년도 대입전형 관련 위원회를 입학전형의 안정적 운영 및 공정성·투명성의 두 축으로 체계화 하였다. /채희종 기자 chae@

광주 북구, 청년·경단녀 일자리 창출 박차

12억5천만원 확보

광주시 북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2개 공모에서 총 12억여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광주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북구가 선정됐다.

북구는 오는 12월까지 총 3억 4000만 원의 사

업비를 투입해 6개월 이상 취업 또는 교육·직업 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구직단절청년들을 발굴, 심리상담과 금융교육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가 공모에서 확보한 9억 1000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광산업진흥회,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수행기관과 고졸청년, 경력 단절여성을 대상으로 4차 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 클라우드 기술 기반 재택 상담사 및 아동돌봄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40th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50억원 한도)

최고 2,000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살론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 화재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요가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자산지점 | 062)222-1431